

# 무계본(無界本) <진언집(眞言集)> 연구\*

안주호

(위덕대학교)

Ahn, Joo-Hoh. 2005. A Study on the Mu-gyeo-pon <Jineonjip>(the Borderless Type <Mantra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n Journal* 13(1), 91-105. The Ansimsa Version <Jineonjip(Mantras)> has been known as the oldest one of the mantras remaining from the Chosun Dynasty until today. Even though this was published in 1569, it can be assumed that an earlier version of <Jineonjip(Mantras)> than this might have existed in view of the phrase "Republished <Jineonjip(Mantras)>" in the preface.

The Gyujanggak Libra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keeping the Mu-gyeo-pon <Jineonjip>(the Borderless Type <Mantras>), incomplete with the last part missing. The author considers the Mu-gyeo-pon <Jineonjip> the early version of Ansimsa <Jineonjip(Mantras)>, first because it is of Borderless Type. Among the literatures of Middle Korean, the Borderless Type, which does not have lines inside the broad frames, can be found only in <Wol-in-cheon-gang-ji-gok>, <Seok-bo-sang-jeol>, Korean version <Odai-Jineon(Five Great Mantras)> collected in the Seong-am Antique Book Library, and the <Jineonjip(Mantras)> studied in the present paper. Consequently, although the exact publishing date is unknown due to the missing last part which contained the publication date, it can be estimated to be the latter half of the 15th century at the latest.

Second reason is the title of center on the printed book. This Mu-gyeo-pon <Jineonjip>(the Borderless Type <Mantras>) carries "Gyeol-su-mun-jeong-um" as the cover book title, but "Gyeol-su-mun," as one of the titles enlisted in this book like "Ji-ban-mun", happened to be positioned in the place of cover book title because it was the first in the order. The title of center on the printed book, being "Jineonjip(Mantras)", indicates that the book title at the time of first edition was <Jineonjip(Mantras)>. Thirdly, the book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the Ansimsa version, so are the enlisted order and arrangement. Furthermore, 'Eon-bon' and 'Sil-dam-jang' are listed in the beginning in the Ansimsa version, whereas 'Sil-dam-jang' is listed in the end after all the mantras are listed in the borderless type version. Consequently, it can

---

\*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KRF-2003-050-A00043)

be concluded that the Mu-gyeo-pon <Jineonjip>(the borderless type <Mantras>) is the early version of the Ansimsa version <Jineonjip (Mantras)>, based on which other mantras were added.

**주제어(Key words):** 무계본 <진언집>(Mu-gyeo-pon <Jineonjip>, the Borderless Type <Mantras>), 안심사본 진언집(the Ansimsa Version <Jineonjip(Mantras)>), 판심제(the title of center on the printed book), 실담장(Sil-dam-jang)

## 1. 서론

지금까지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진언집> 중에는 안심사본이 최고(最古)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조선시대에는 배불정책으로 불교가 탄압을 받았지만, 진언을 기복 신앙의 방편으로 여기는 밀교는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한글이 창제된 후에는 진언을 한글로 표기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졌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언만을 모은 <진언집>이 큰 사찰을 중심으로 편찬되어 왔다. 한국고서종합목록(국회도서관)에 의하면, 현존하면서도 간기가 분명한 대표적 <진언집>으로는 안심사(安心寺)본(1569년간), 신흥사(神興寺)본(1658년간), 보현사(普賢寺)본(1688년간), 금산사(金山寺)본(1694년간), 만연사(萬淵寺)본(1777년간), 망월사(望月寺)본(1800년간)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안심사본은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문헌의 발문에는 “안심사중간(安心寺重刊)”이라는 내용이 있어 안심사본이 중간본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심사본의 저본(底本) 내지 초간본(初刊本)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인도의 실담문자를 한글로 음역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인 실담장(悉曇章)에 대해 안심사본을 중심으로 다룬 박병채(1979)나, 한글판 <오대진언>의 음역에 대해 다룬 안병희(1987)와 안심사본의 표기에 대해 다룬 줄고(2002)에서 안심사본의 초간본 내지 저본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안병희(1987)에서는 각주에서 간략히 서울대 규장각과 고려대 도서관에는 표제지명이 ‘결수문정음(結手文正音)’이라고 되어 있는 계선(界線)이 없는 무계(無界)의 진언집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문헌이 안심사본의 저본이 아닐까 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불행히도, 이 문헌

은 앞뒤의 상당 부분이 낙장이 되어 있어 간기를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표제지명이 <결수문정음>으로 되어 있어, 오랫동안 다른 문헌으로 간주되어 왔다. 안병희(1987)에서는 이 문헌이 안심사본의 저본이라는 근거로 바로 무계(無界)라는 점을 들었다. 중세국어 한글자료에서 무계본이 나타나는 것은 15세기뿐인데,<sup>1)</sup> 이 무계본 <진언집>은 현재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을뿐더러, 간기 부분이 낙장되어 간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계라는 점에서 늦게 잡아도 15세기 말까지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무계본 <진언집>의 서지적 특징과 내용체제를 안심사본과 그 외의 다른 <진언집>과 비교해 보고,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 2. 무계본 <진언집>의 서지학적 특징과 체제

이 글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무계본 <진언집>은 서울대 규장각[古 1730-34]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목판본이며 표제지명은 ‘결수문정음(結手文正音)’이라고 되어 있으나, 판심제명은 ‘진언집(眞言集)’으로 되어 있으며, 자세한 서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刊地未詳, 刊者未詳

1冊(50張) 四周單邊, 半葉匡郭: 24×15.8cm, 無界, 10行24字

版心: 黑口, 上下內向花紋魚尾: 전체크기 29×19cm

이 문헌은 책의 장수가 50장이라 했으나, 실제로는 52장으로 되어 있으며, 주된 진언의 내용이 안심사본과 같이 ‘한글→한자→범어’의 순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어떤 것은 한글로만 표기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한자→범어’의 순으로만 표기된 것도 있다. 본문의 진언 체계와 표기는 안심사본과 유사하나, 안심본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많이 존재하는데, 서지적 특징을 몇 가지 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 진언집의 판식은 <자료1>에서 보듯이 사주 단변이며, 반엽광곽으로서, 무계 곧 행을 나누는 선이 없이 1면이 10행, 1행에 24자의 쌍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판심이 흑구에 상하 내향의 화문어미로서, 여기에 판

1) 서지학에 대한 전반적 이해는 천혜봉(1997), 남권희(2002), 서지학개론 편찬위원회(2004) 등을 참조하였다.

심서명과 장차가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판식에서 주목할 점은 무계라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중세국어 자료에서 무계본인 것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등과 같이 15세기의 것들뿐이다.<sup>2)</sup> 따라서 이 무계본 진언집은 간년을 15세기말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무계본 <진언집>은 표제지명이 '결수문정음(結手文正音)'이라 되어 있고, 판심서명은 '진언집(眞言集)'으로 되어 있다. '결수문(結手文)'은 '지반문(志磐文)' 등과 같이 이 책에 수록된 편명인데, 순서가 제일 먼저이어서 훼손된 문헌을 후대에 다시 제본할 때에, 권두서명(卷頭書名)의 자리에 나타나 이를 표제지명(表題紙名)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심제명이 '진언집(眞言集)'이므로 서명은 <진언집(眞言集)>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선시대 현존하면서도 간기가 분명한 진언집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안심사(安心寺)본(1569년간), ㉡신흥사(神興寺)본(1658년간), ㉢보현사(普賢寺)본(1688년간), ㉣금산사(金山寺)본(1694년간), ㉤만연사(萬淵寺)본(1777년간), ㉥망월사(望月寺)본(1800년간) 등이 있는데, 이 무계본 <진언집>은 이들 진언집의 저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중 최고(最古)의 <진언집>은 안심사본(1569년간)인데, 안심사본의 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고, 무계본은 표기와 체계 면에서 안심사본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2) 옛 청구에 <식모집>이 한 질 있어 (중략) 그 일부(一部)를 고쳐숨에 있어서는 옛 법에 따라 쓴 것으로 한 울이라도 임의로 쓴 것은 없다. 昔靑丘有識稟集一帙 (중략) 故改書于一部, 皆以古法書之, 而無一毫自述之意 <안심사본 진언집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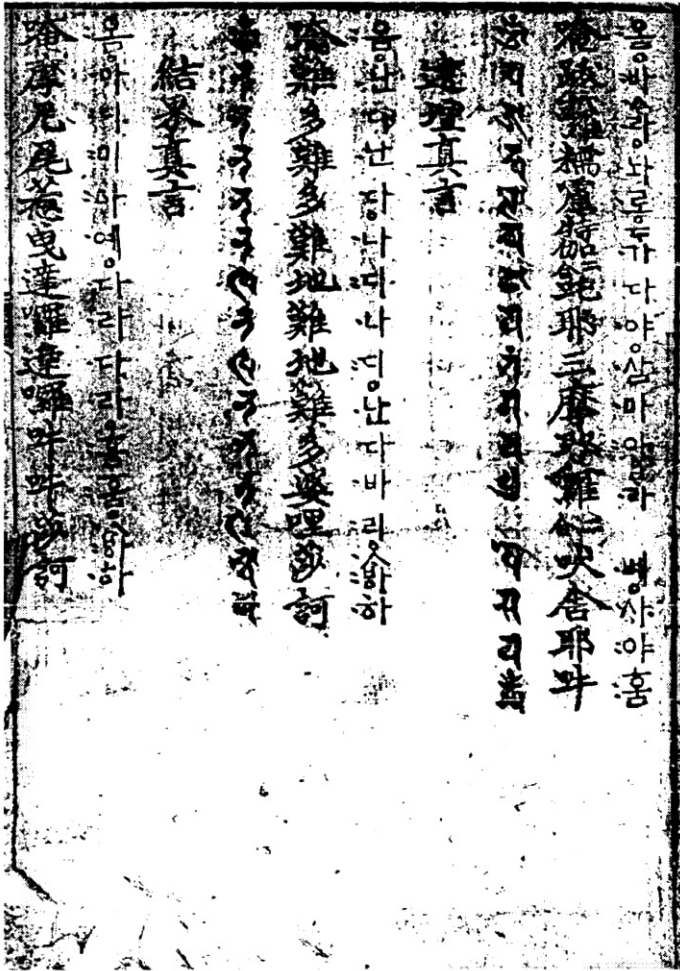
이를 보면 안심사본은 <식모집>의 중간본으로서, 여기에 나온 진언들은 그것을 개서함에 옛 법에 따라 그대로 썼다는 것이다. 또한 보현사본의 발문에 “여러 곳에 판본이 있는데, 정확이나, 그림 등이 마멸되어(諸處板本點畫磨滅) 다시 새긴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진언집들이 있었으며, 신흥사본이나, 보현사본, 금산사본 등도 이러한 <진언집>의 이본들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여러 <진언집>에서 본문적인 진언 외에 더 실린 내용을 비

2) 그리고 성암고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판 <오대진언>도 무계본인데, 이에 대해서는 안병희(1987)에서 소개하고 있다.

교해 보면, 보현사본(1688년)에는 없으나, 안심사본(1569년)은 ‘실담장(悉曇章)과 언본(諺本)’이 있으며, 만연사본(1777년)에는 ‘중간진언집서(重刊眞言集序)’가 있고, 권하(卷下)의 부록에 ‘실담장 아자론(悉曇章 阿字論)’과 용암화상(龍岩和尚)이 증수(增肅), 교대(校對)한 범례(凡例), 그리고 홍무정운지도(洪武韻字之母圖), 언본십륙자모(諺本十六字母), 범본오십자모실담장(梵本五十字母悉曇章)’ 등이 있다. 또한 조선시대 진언집의 집대성본이라 할 수 있는 망월사본(1800년)에는 만연사본과는 다른 ‘중간진언집서(重刊眞言集序)’가 있으며, 그 외에도 진언집총론(眞言集總論), 아자론(阿字論), 실담장해의총론(悉曇章解義總論), 진언집범례(眞言集凡例), 홍무운자모지도(洪武韻字母之圖), 언본십륙자모(諺本十六字母), 범본오십자모실담장(梵本五十字母悉曇章)’ 등이 실려 있다.(줄고 2002가,나, 2003나 참조) 이에 비해 무계본 <진언집>에는 실담문자와 한자음, 그리고 한글음을 대응시켜 놓은 ‘실담장(悉曇章)’만이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을 뿐이다. 이를 비교해 보면 보현사본만이 서문이나 권하에 실담장에 대한 해설부분이 없을 뿐이지, 무계본 <진언집>부터 안심사본, 만연사본, 망월사본으로 갈수록 ‘실담장(悉曇章)’을 기본으로 하여 진언을 표기할 때 생기는 범어와 한자음 간의 괴리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더욱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계본 진언집이 저본이 되어 안심사본, 만연사본, 망월사본으로 갈수록 내용이 보완,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1: 무계본 <진언집>의 일부분(2기)>

### 3. 무계본 <진언집>과 제 진언집의 내용 비교

무계본 진언집부터 안심사본, 만연사본, 그리고 망월사본의 순서로 <진언집>이 개간이 되는데, 수록된 진언은 후대로 갈수록 더 첨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권두에 나온 목차의 진언명을 중심으로 안심사본, 만연사본, 망월사본의 순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3)</sup>

<표1: 무계본 / 안심사본/ 만연사본 /망월사본의 진언 목차 비교 >

무계본(15c말)	안심사(1569년)	만연사(1777년)	망월사(1800년)
			(상권)
		(상권)	結手文 (49측)
結手文	結手文	結手文	志磐文(35측)
志磐文	志磐文	志磐文	仔鶯文(46측)
仔鶯文	仔鶯文	仔鶯文	點眼文(31측)
點眼文	點眼文	點眼文	正本楞嚴呪
正本楞嚴呪	正本楞嚴呪	(하권)	(하권)
佛頂心觀自在菩薩姥	佛頂心觀自在菩薩姥	正本楞嚴呪	無量壽決定光明王如
陀羅尼	陀羅尼	佛頂心觀自在菩薩	來陀羅尼
藥王菩薩陀羅尼	佛頂尊勝陀羅尼	姥陀羅尼	(60)
勇施菩薩陀羅尼	藥王菩薩陀羅尼	佛頂尊勝陀羅尼	佛頂心觀世音菩薩姥
佛頂尊勝陀羅尼	勇施菩薩陀羅尼	藥王菩薩陀羅尼	陀羅尼
	諸經眞言	勇施菩薩陀羅尼	佛頂尊勝陀羅尼
		諸經眞言	藥王菩薩陀羅尼
		新增	勇施菩薩陀羅尼
		千手陀羅尼	諸經眞言
		正本楞奄呪	千手陀羅尼(이하신증
		寶篋陀羅尼	22측)
		造像經眞言	大隨求陀羅尼
		諸經字母	正本楞嚴呪
		金翅鳥王眞言	諸經字母
			金翅鳥王眞言
			造像經眞言(46측)

3) 무계본 <진언집>은 목차가 없으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목차를 확인할 수 있다.

본문에 진언이 실린 순서를 비교해 보면,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가 무계본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반면, 안심사본에는 불정심관자재보살모다라니(佛頂心觀自在菩薩姥陀羅尼)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제경진언(諸經眞言)이라고 하여 여러 진언이 더 첨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결수문(結手文), 지반문(志磐文), 자연문(仔鷲文), 점안문(點眼文), 정본능엄주(正本楞嚴呪), 불정심관자재보살모다라니(佛頂心觀自在菩薩姥陀羅尼), 약왕보살다라니(藥王菩薩陀羅尼), 용시보살다라니(勇施菩薩陀羅尼),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가 주가 되어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만연사본도 안심사본과 동일하나, ‘천수다라니(千手陀羅尼), 정본능엄주(正本楞嚴呪), 보협다라니(寶篋陀羅尼), 조상경진언(造像經眞言), 제경진언(諸經字母), 금시조왕진언(金翅鳥王眞言)’이 새롭게 첨가되었고, 망월사본에서는 여기에 ‘대수구다라니(大隨求陀羅尼)’가 더 첨가되어 있다.

진언이 실린 순서와 표기는 <표1>에서 보듯이 무계본과 안심사본이 동일하다. 결수문(結手文, 1ㄱ-9ㄱ), 지반문(志磐文, 9ㄱ-15ㄱ), 자연문(仔鷲文, 15ㄱ-26ㄴ), 점안문(點眼文, 26ㄱ-31ㄱ), 정본능엄주(正本楞嚴呪, 31ㄱ-41ㄱ), 불정심관자재보살모다라니(佛頂心觀自在菩薩姥陀羅尼, 41ㄱ-42ㄴ)까지는 동일하게 ‘범자→한자→한글’의 순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지공(指空)이 음역한 관세음보살시식(觀世音菩薩施食)인 ‘감로수진언(甘露水眞言), 시일체토주신저상(施一切土主神祇像), 시용왕팔부신선상(施天龍八部神仙像), 시삼도상(施三途象), 시일체수주신저상(施一切水主神祇像), 봉송진언(奉送眞言)’ 등이 같은 순서로 ‘한자→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의 경우,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먼저 불정존승다라니계청(佛頂尊勝陀羅尼啓請, 무계:50ㄱ)은 동일하게 무계본이나 안심사본에서 한자로만 표기되어 있다. 이에 비해 실제 불정존승다라니는 무계본에서는 (3)과 같이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반해, 안심사본은 ‘한자→한글’의 순으로 한글음에 대응되는 한자를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계청과 명칭의 불정존승타라니라도 상원사본 <오대진언(1486년간)>이나 만연사본, 망월사본 등의 <진언집>에 실린 것은 (4)와 같은 내용으로 (3)과는 사뭇 다르다.<sup>4)</sup>

4) 상원사본 <오대진언>에 대해서는 졸고(2003가)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 (3) :우씨 | 사비:사:야. ·다라니. :옴. ·부릉사·하. ·나·무바·카:바·디.  
·살:바드·리·로가. ㅂ·라·디. 비·사짜:야. ·부다:야:데·나·마. 다·터타.  
:옴. ·부릉·부릉·부릉. ·소다:야:소다:야. 비·소다:야비 (이하 생략)
- (4) ·나·무:바:아·바:데. ㄷ:래:루가. ㅂ·라·디. ·미·시짜야  
·모·다:야. :바:아·바:데. 다:나타. :옴. ·미·슈타야  
·미·슈타야. ·사·마·사·마. 사만다. 바바사. ㅅ·라·나.  
:아:데:아·하·나. ·빠·바·바·미·슈·데. 아·비·신·자. 도:맘. ·소:아·다.  
·바·라·바·자·나. ·아·므·리·다 (이하 생략)

(3)은 무계본과 안심사본에 있는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의 내용이고, (4)는 상원사본 <오대진언>을 비롯한 여러 진언집에서 나온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의 내용이다. (3)과 같은 불정존승다라니는 또한 한글판이라고 불리우는 <오대진언(15세기말로 추정)>에도 나타나고 있다. 한글판 <오대진언>의 불정존승다라니 부분은 비록 3장만이 온전하나, 여기까지 확인된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sup>5)</sup> 또한 보현사본의 불정존승다라니도 (3)과 같이 무계본이나 안심사본과 동일한 것이다. 단지 무계본 <진언집>에서는 역자와 한자나 범자의 대역없이 한글로만 적혀져 있는 반면, 안심사본 <진언집(1569년)>이나, 보현사본 <진언집>에서는 한자음역을 덧붙여 놓았을 뿐 아니라, ‘서천사조 선사지공역(西天嗣祖 禪師指空譯)’이라는 역자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무계본 <진언집>에서 보이던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의 내용이 안심사본이나 보현사본에 가면서 한자 대역과 역자에 대한 정보가 더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와 같은 상원사본 <오대진언>의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93a-97b)는 진언명 다음에 ‘계빈국 삼장사문 불타파리역(闍賓國 三藏沙門 佛陁波利譯)’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로 보아 이 불정존승다라니는 인도 케시미르 출신의 ‘불타파리(佛陁波利)’가 한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불정존승다라니는 상원사본 <오대진언>외에도 만연사본이나 망월사본에도 실려있다. 만연사본은 졸고(2003년)에서 논의했듯이 18세기 범자 학승이며, 선승이었던 용암화상과 그의 제자 백암화상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서,<sup>6)</sup> 종래부터 전해져 내

5) 이 한글판 <오대진언>은 성암고서 박물관에 소장된 것으로 진언의 내용이 단지 한글로만 표기되었기 때문에 ‘한글→한자→실답문자’로 쓰여진 상원사본 등의 <오대진언>과 구별하기 위해 <한글판>이라고 불린 것이다.

6) 龍岩和尚은 西山大師 休靜(1520-1604)의 제4세 喚惺志安의 門弟로서, 1784년 우리나라 梵唄의 족보를 밝혀놓은 <梵音族譜>의 序文을 쓴 선승으로 범어에 깊은

려오고 있던 <진언집>, <오대집>, <조상경> 등의 잘못된 곳을 여러 경전의 언해, 홍무정운, 삼운성취 등과 같은 언문주석서를 참조하면서 새롭게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만연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다시 개간한 것이 망월사본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조선시대에는 ‘불정존승다라니’라는 명칭으로 지공(指空)이 역한 것과 불타파리(佛陁波利)가 역한 것이 두 종류 존재했는데, 지공이 역한 것은 ‘무계본, 한글판 <오대진언>’에서 비롯되어 ‘안심사본, 보현사본’ 등으로 이어졌고, 불타파리가 역한 것은 ‘상원사본 <오대진언>’에서 출발하여 ‘만연사본, 망월사본’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정존승다라니 뒤에는 ‘편일체각자륜액진언(遍一切各字輪額前眞言), 정우진언(頂右眞言), 정후진언(頂後眞言), 정좌진언(頂左眞言), 구전(口前), 구후(口後)’등이 이어서 나오는데, 안심사본, 무계본 등에는 모두 ‘범어→한자’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도 ‘인왕호장반야다라니(仁王護藏般若陁羅尼)’는 안심사본에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무계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무계본 <진언집>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심사본 <진언집>에서는 당시에 송수되던 몇 가지 진언이 더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실담장 비교

실담장(悉曇章)은 실담문자 50자의 음가를 한역음과 한글음을 대응시켜 놓고 있는 부분이다. 안심사본에서는 언본(諺本)과 실담장(悉曇章)이 책의 앞부분에 실려 있으나, 무계본의 경우 진언을 모두 수록하고 그 말미에 실담장을 실고 있다.(자료2 참조) 이와 같이 실담문자의 기본자에 대해 한자음과 한글음으로 대응시켜 놓은 실담장은 두 문헌 모두에서 모음에 해당하는 12전성(十二轉聲)과 4조음(四助音), 자음에 해당하는 25아등5음(二十五阿等五音), 그리고 9회음(九會音, 超音) 등을 포함한 50자를 기본 실담문자로 보고 있다.(줄고 2002가,나, 2003나 참조) 먼저 12전성은 기본 모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안심사본에서 보인 한글음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도표화할 수 있다.<sup>7)</sup>

조예가 있었다 한다.(이능화 1918/1968 상:529항) 참조

7) 실담문자의 자형은 아직 컴퓨터화되지 않아 로마자로 대신해 놓았으며, 이에 대응되는 한역음을 첫째 줄에 표기해 놓고, 그 다음 줄에는 무계본에서 보인 한글 대응음을 펼쳐 놓았다.

<표2 : 12전성>

a 阿(上)	ā 啊(去)	ī 伊(上)	ī 唎(去)
:아 :으 :어 :으	:아 :으 :어 :으	:애 :익 :에 :이	:애 :애 :예 :이
u 烏(上)	ū 鳴(去)	e 曳(去)	ai 愛(入)
:와 :오 :워 :우	:와 :오 :워 :우	:애 :에 :예 :이	:애 :익 :에 :의
o 汙(去)	au (入)	am 暗(去)	ah 惡(入)
와 :오 :워 :우	:와 :오 :워 :우	:암 :옴 :엄 :음	:악 :옥 :억 :옥

<표3 : 4조음>

r 里(上)	ī 哩(去)	l 梨(上)	ī (去)
:래 :래 :레 :리	:래 :래 :레 :리	:래 :리 :레 :리	없음

<표2>는 12전성을, <표3>은 4조음을 도표로 만든 것이다. 한글로 음사된 부분을 보면, 무계본과 안심사본에서는 12전성을 모두 ‘ㅇ’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조음 “r, ī, l, ī”도 우리말로는 구분이 안 되는 음운인데, 만연사본이나 망월사본에서는 구분없이 모두 [래 리 레 리]로 표기되고 있으나, 무계본과 안심사본에서는 장음인 [ī]에 대응되는 한글음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이, 만연사본이나 망월사본과 다른 점이다.

실담문자에서 자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25아등5음(二十五牙等五音)과 9회음(九會音)이다. 25아등5음은 발음되는 위치에 따라 구분되는데, 무계본의 한글음과 안심사본의 한글음을 대응시켜 보면 <표4>와 같이 동일하다.

<표4 : 25아등5음>

牙音	ka 迦(平/清)	kha 佉(平/濁)	ga (上)	gha 伽(去)	na 仰(入)
	가 ㄱ 거 ㄱ	카 ㅋ 커 ㅋ	:아 :으 :어 :으	:가 :ㄱ :거 :ㄱ	:앙 :ㅇ :ㅇ :ㅇ :영 :용
齒音	ca 左(平/清)	cha 差(平/濁)	ja 惹(上)	jha 社(去)	ña 攘(入)
	차 ㄷ 저 ㄷ	차 ㅌ 처 ㅌ	:샤 :스 :셔 :스	:자 :저 :조 :즈	:샹 :ㅇ :ㅇ :ㅇ :쌍 :승
舌音	ta 吒(平/清)	tha 佉(平/濁)	da 拏(上)	dha 荼(去)	na 囊(入)
	다 ㄷ 더 ㄷ	타 ㅌ 터 ㅌ	:나 :ㄴ :너 :ㄴ	:다 :ㄷ :더 :ㄷ	:낭 :ㅇ :녕 :ㅇ
喉音	ta 多(平/清)	tha 佉(平/濁)	da 那(上)	dha 駄(去)	na 娜(入)
	다 ㄷ 더 ㄷ	타 ㅌ 터 ㅌ	:나 :ㄴ :너 :ㄴ	:다 :ㄷ :더 :ㄷ	:낭 :ㅇ :녕 :ㅇ
脣音	pa 波(平/清)	pha 頗(平/濁)	ba 摩(上)	bha 婆(去)	ma 莽(入)
	바 ㅍ 버 ㅍ	파 ㅍ 퍼 ㅍ	:마 :ㅁ :머 :ㅁ	:바 :ㅍ :버 :ㅍ	:망 :ㅇ :명 :ㅇ

<표5 : 9초음>

ya 野(上)	ra 囉(去)	la 囉(平)	va 囉(上)	sa 舍(去)
:야 ·아 :여 ·어	·라 ·라 ·러 ·르	라 ·러 ·러 ·르	:바 :브 :버 ·브	·사 ·시 ·서 ·시
sa 沙(平)	sa 薩(上)	ha 賀(去)	ksa (平)	
사 스 서 스	:사 :스 :서 :스	·하 ·흐 ·허 ·흐	乞洒가사 ㄱ사 거서 그서	

9초음도 무계본이나 안심사본이나 다를 바 없이 동일한 대응음으로 표기되어 있다.(자료2참조)



<자료2: 무계본 <진언집> 실담장(悉曇章)의 일부>

## 5. 맺음말

지금까지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진언집> 중에는 안심사본이 최고(最古)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안심사본은 1569년에 간행된 것이나, “안심사중간(安心寺重刊)”이라는 문구가 발문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초간본 <진언집>이 있었으리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초간본이 발굴되지는 않았다.

이 글에서는 서울대 규장각과 고려대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무계본(無界本) <진언집>이 안심사본 <진언집>의 저본에 해당하리라 보며,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무계본이라는 점이다. 중세국어 문헌에서 광곽(廣廓) 안에 선이 없는 무계본인 것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그리고 성암 고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판 <오대진언>과 이 글에서 다루는 무계본 <진언집> 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문헌이 마지막 부분이 낙장(落張)이 되어서 간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리 늦게 잡더라도 1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어 1569년에 간행된 안심사본보다도 훨씬 앞선 시기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판심제가 ‘진언집(眞言集)’이라는 점이다. 이 무계본 <진언집>은 권두서명의 자리에 ‘결수문정음(結手文正音)’이라 되어 있지만, ‘결수문’은 ‘지반문’ 등과 같이 이 책에 수록된 편명으로서, 순서가 제일 먼저이어서 권두서명의 자리에 나타났을 뿐이지, 판심제는 안심사본과 동일한 “眞言集”이다.

셋째, 수록된 진언의 종류와 체제가 안심사본과 같다. 단지 안심사본은 권상에 불정심다라니가 수록되어 있고 무계본에서 보이지 않는 인왕호장반야다라니(仁王護藏般若陀羅尼) 등이 더 수록되어 있다. 또한 안심사본에서는 언본(諺本)과 실담장(悉曇章) 등이 책의 앞부분에 나타나나, 무계본의 경우 진언을 모두 수록하고 그 말미에 실담장만을 실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넷째, 불정존승다라니의 경우 지공이 음역한 것과 불타파리가 음역한 것 두 종류가 조선시대의 <진언집>에서 보인다. 지공이 음역한 것은 이 글에서 다른 무계본과, 한글판 <오대진언>, 안심사본, 그리고 보현사본 등에서만 보이고, 불타파리가 역한 것은 상원사본 <오대진언>, 만연사본, 망월사본 등에서 보이며 이것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러므로 무계본의 불전존승다라니가 안심사본에 이어졌음을 살펴볼 수 있다.

다섯째, 무계본에는 진언이 모두 실린 다음에 ‘실담장(悉曇章)’이 나오는

데, 안심사본에는 권두에 ‘실담장’과 ‘언본’이 나올 뿐, 실담장의 한글 대응 음은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안심사본<진언집>의 저본은 무계본 <진언집>으로서, 조선시대의 <진언집>은 무계본을 바탕으로 하여 나머지 진언들과 범어와 한자어의 음가차이에서 빚어지는 괴리에 대한 설명을 더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강길운. (1957). 五大眞言音譯考. 일석 이희승 선생 송수 기념 논총. 1-27.

남권희. (1999). 12세기 간행의 불교자료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17, 376-420. 서지학회.

남권희. (2002).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청주고인쇄박물관.

남풍현. (1999). 국어사를 위한 구결연구. 서울:태학사.

박병채. (1979). “진언집실담장고”, 일산 김준영선생 화갑기념, 국어문학회 서지학개론 편찬위원회. (2004). 서지학 개론. 서울:한울 아카데미.

심재기. (1976). 한자의 진언음사에 대하여. 김형규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서울사대 국어교육과.

안병희. (1971). 15세기의 한자음 한글표기에 대하여. 김형규박사송수기념논총. 일조각.

안병희. (1987). 한글판 <오대진언>에 대하여. 한글195. 141-164, 한글학회.

안주호. (2002가). 망월사본 <진언집>을 중심으로 한 진언표기의 기초 연구. 국어교육 109. 251-276. 한국국어교육학회.

안주호. (2002나). 안심사본<진언집>과 망월사본 <진언집>의 비교연구. 배달말 31, 175-196, 배달말학회.

안주호. (2003가). 상원사본 <오대진언>의 표기법 연구. 언어학 11-1, 69-87, 대한언어학회

안주호. (2003나). 만연사본 <진언집(1777년간)>의 표기법 연구, 국어국문학 133, 113-144, 국어국문학회.

이능화. (1918/1968). 朝鮮佛敎通史 上. 新文館/경희출판사.

정 각. (1996). 천수경 연구. 운주사.

천혜봉. (1997). 한국서지학. 민음사.

최현배. (1960). 고진 한글갈. 정음사.

허 응. (1965/1985). 국어음운학(개고신판). 정음사(샘문화사).

Karlgren. B. (1954. 이돈주 역주 1985), *Co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中國音韻學).

안주호

780-713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50

위덕대학교 국어학전공

전화번호: (054) 760-1772

이메일: anjh@uiduk.ac.kr

Received: 30 Dec, 2004

Revised: 8 Mar, 2005

Accepted: 12 Mar, 2005